

보도자료

배포일시: 2018. 11. 7.(주간)

담당부서 사업지원본부 다문화사회지원부

부 장 : 김지수(02-3479-7770)

담 당 자 담 당 : 이현주(02-3479-7772)

■ 총 3쪽

■ www.kihf.or.kr

표창원 국회의원, 다문화청소년의 글로벌인재 성장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 간담회 및 장학증서 수여식 참석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및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하나금융나눔재단 등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성장지원을 위한 간담회 개최
- 11월 7일(수) 오후 1:40, 여의도 CGV

-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사장 김혜영)은 11월 7일(수) 오후 1시 40분, 여의도 CGV에서 전혜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표창원 국회의원, 김한조 하나금융나눔재단 이사장, 고명석 해양경찰교육원장, 여성가족부 관계자와 함께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성장지원을 위한 간담회 및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하였다.
- 2018년 하나금융나눔재단과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이중언어인재풀에 등재된 다문화가족 청소년 대상으로 장학생을 9명 선발하였고 김세현(고 1, 원주의료고등학교)군과 부모님, 황금령(영진전문대)양도 참석하였다. 김세현 군의 아버지는 “아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 준 것으로도 좋은 일이지만 이번 장학금을 받게 된 계기로 이중언어를 통해 의료분야에서 대한민국을 널리 알리는 직업을 갖길 바라고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도움을 준 많은 분들에게 감사하다” 고 하였다.

□ 표창원 국회의원은 급변하는 다문화사회로의 변동 속에서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는 역동적인 사회변화의 모습으로 모든 국민이 성숙한 다문화수용성을 갖추어 가야한다고 강조하였다. 현재 다문화가족의 자녀가 학령기로 급격히 진입하고 있고 특히, 중·고등학생도 전체 학생 중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청소년기는 발달단계 중에서도 자립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다문화가족의 특징을 살려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글로벌 역량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민간자원과 정부주도의 정책을 결합하여 이중언어장학생을 선발하고 중장기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좋은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모든 다문화청소년들이 웹드라마 ‘조선에서 왓츠롱’ 주인공인 ‘황기쁨’ 처럼 당당하고 따뜻한 청년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하였다.

□ 김한조 하나금융나눔재단 이사장은 기업이 여성가족부 및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공공정책서비스와 더불어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뜻깊은 사업에 참여하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고 하였으며, 고명석 해양경찰교육원장은 다문화·비다문화 구분없이 역량있는 인재들이 모든 분야에 걸쳐 진로를 개척할 수 있어야 하고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청소년기를 지나 성인기로의 진입도 늘어나는 만큼 이번 다문화인식개선 웹드라마 제작에 후원하게 되어 해양경찰청 입장에서 의미도 크다고 하였다.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김혜영 이사장은 이번 “조선에서 왓츠롱”은 2030세대가 즐겨보는 웹드라마 형식으로 제작하여, 대한민국의 미래 주역인 2030세대도 다문화가족과 함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인지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작품”이라며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을 보다

폭넓게 이해하고 차별과 편견이 없는 건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국민 모두가 동참하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이어 한국건강가정진흥원도 여성가족부와 더불어 다문화인식개선을 위한 보다 다양한 사업을 기획하고 활발히 추진할 것이라고 하였다.